

# 인격의 제자훈련

## 1. 저자 소개

박영선 목사님은 30년 동안 남포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해 오셨고, 현재는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설교 활동을 하고 계시며, 후학들을 위해 끊임없이 책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나온 최근의 도서가 '인격의 제자훈련'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구호에 몸부림치던 시절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에 천착해 오신분입니다. 목사님이 믿음의 주체와 원동력을 신자가 아닌 하나님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끈질기게 붙들어온 결과입니다. 젊은 시절 율법 준수와 명분 강조가 전부였던 당시 설교단상에서 그는 믿음과 성화의 은혜를 성경이 말하는 자리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침없이 추적하여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의 신비를 풀어내며, 이를 아는 신자의 명예와 자랑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 2. 이 책을 선택한 이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일반 신자가 받는 평범한 삶의 훈련입니다.』 인격의 제자훈련 내용 중

우리는 이제까지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특별한 특정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박영선 목사님은 제자란 우리 모든 성도를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매순간에 우리는 훈련된다고 말씀한다. 이제까지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박영선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이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하는지 주장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3. 목차 소개

- ◆ 1장 제자란 무엇인가
- ◆ 2장 제자도란 무엇인가
- ◆ 3장 신자란 누구인가
- ◆ 4장 성결, 기도, 경건의 시간
- ◆ 5장 증인으로서의 삶
- ◆ 6장 성도의 삶과 훈련
- ◆ 7장 제자훈련이란 무엇인가

7월 26일 월요일

본문: 마태복음 28:18-20

찬송:

## &lt;1장 제자란 무엇인가&gt;

하나님은 그동안 한국교회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제자훈련으로 각 교회가 전도를 통해 신앙인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라는 것이 ‘전도자’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훨씬 넓고 깊은 뜻을 갖고 있다고 여깁니다. 제자훈련에서 전도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전도 일변도’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훈련이 자꾸 기능인을 키우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었고, 성도들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성경이 요구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문제제기)

우선 이 불편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이라는 용어에서 ‘제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제자’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제자란 어떤 특수 직분을 맡은 사람인지, 아니면 모든 신자를 일컫는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명칭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마태복음 28:18-20에 나오는 제자

우선 제자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풀려면 제자를 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19-20절을 선교적 사명으로서 전 세계적인 비전이라고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깔끔한 이해는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빌립보서 2:6-1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뜻하신 바를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는 성경을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가 겁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셨기에 이제는 그분을 믿으며 누구든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허락되었으니 너희는 마음을 놓고 가서 누구든지 살리고 구원해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능력을 의지한다면 지식이나 환경이나 어떤 제주를 의지할 것이고, 십자가가 모든 권세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근거와 조건과 방법을 십자가에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른 신앙의 색깔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열쇠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말씀 속에는 모든 인류의 구원과 역사 그리고 창조된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를 근거로 하고, 예수를 공통분모로 하며 예수를 초점으로 한다는 선언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일이 불가능하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분 안에서만 그 일이 진행되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사도행전 1:8절에 나오는 제자

앞서서 마태복음 28:18-20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에서 “모든 민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절에 가면 주님의 명령이 다르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까지’나 앞서 말한 ‘모든 민족’은 요즘 우리에게 부여된 전도 사명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땅 끝’과 ‘모든 민족’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며 하나님 백성의 범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제자로 삼으로’는 것 때문에 제자를 삼는 사람은 특별한 지도층을 가르치는 더 고급한 사람인 것처럼 우월감을 가져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과 은혜를 땅끝까지 모든 민족 곧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 제자로 삼는 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상고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허락한 복된 구원의 영광이 동등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특수한 임무를 가진 독특한 신분이나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는 지위를 갖는 것이고, 열등한 구원이 아닌 동등한 구원이며, 영광된 구원을 모든 민족이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독특한 지위와 책임이기보다는 영광의 부르심에 대한 동등한 지위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의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자로 삼고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특별 직무를 수행할 기능인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지만 부름 받은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현실에서 성도의 일반적인 대처법은 분별과 안목으로 갈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명령을 받은 제자가 가서 다른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키는 특수 요원을 키우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하면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을 받은 초대제자들(사도들)만이 땅 끝까지 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제자로 삼는 대상 곧 부름 받은 자들은 또 다시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배워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의 첫 번째 책임은 전도가 아니라 삶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땅 끝까지 전하는 몫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몫이었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 전도를 받은 제자라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것이 마치 전도적 사명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한 것은 우선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이 명령을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것이고 인종이나 국가나 문화나 차별 없이 모든 백성이 부름 받았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 결과 모든 구원받은 자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삶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 된 자의 첫 번째 책임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신자의 첫 번째 책임이 사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안목과 초점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신자의 첫 번째 책임을 ‘전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로 사람을 불러들여 힘을 모아 어떤 운동을 전개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는 어떤 종교적인 운동 곧 십자군 전쟁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 제자훈련의 초점

**제자훈련의 큰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하도록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새 생명의 출생과 성장과 완성까지 내포한 책임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생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구합니다. 좋은 성품이나 큰 능력 같은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고 새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성숙시켜 완전한 자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훈련은 결국 두 가지 싸움을 합니다. 바로 진리와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되겠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지가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을 그분이 직접 하기 싫으셔서 우리에게 하청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에 담긴 뜻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

본문: 요한복음 13:34-35

찬송:

## &lt;2장 제자도란 무엇인가&gt;

## “제자로 삼아”의 의미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당시 ‘도제 제도’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제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함께 숙식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배우는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와 인격의 변화를 위해 배우고 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갖고 있는 정보를 전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의외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 곧 구속 사건의 핵심인 예수의 죽음으로 연결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 즉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간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인간상은 비신자로서는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산상설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구원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것을 전수하여 저들로 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일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소개합니다(고전1:21)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도’는 ‘방법적 차원’에서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똑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자로 삼[으라]”라고 할 때, 어떤 임무를 갖고 나가는 일이기보다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 “분부한 모든 것”의 의미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요한복음 13:24-25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명령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미심장하냐면 사도행전 1: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주를 따르는 자로 드러내는 일 즉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중요한 제자의 원리입니다. 결국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고”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과 “서로 사랑하라”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로 삼[으라]”가 초대 제자들에게 제자 된 도리와 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요구했다면, 그 다음 제자들을 삼는 것에 있어서도 가르치고 지켜야 할 도리와 표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껏 대부분의 제자훈련은 복음 전도 일변도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제자훈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가 제자 된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가 초점이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과 연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전도는 ‘복음의 습격’을 생각하게 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복음의 습격’이라는 말의 어감을 이해하십니까? 습격은 어떤 뜻이죠? 탈취한 목적을 위해 갑자기 상대방을 무참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행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위 명령을 근거로 한 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계성을 놓치고, 제자 된 첫 번째 사명으로 이해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파괴적 습격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따라오면 너희에게 복이고,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도 싸다’는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는 **‘파괴적’**입니다. 이런 습격의 성격을 가진 복음 전도가 제자훈련의 초점이 되면, 그 일을 행하는 자의 기고만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기독교를 바탕으로 성장한 서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종교적 명분으로 참혹한 짓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갖는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진멸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비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외면하는 자 곧 우리 편이 아닌 자를 심판하여 살육을 감행할 수 있다는 기고만장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국가들이 2천 년간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대나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백인들이 식민지 정책을 펼치면서 선교사를 앞서 보내 복음 전파는 간만 보고 몃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용서와 긍휼이 없는 행위는 기독교 역사의 구비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 훈련을 잘못하면 높은 계급의 인도자가 되거나 심하게 말하면 교황같이 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훈련의 이면에는 겸손이나 화목이나 온유가 없고, 최후의 심판을 위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로마 황제만 남았습니다.

결국 제자훈련은 전도적이지 않고 인격이 변하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전도의 기술이나 열심만 가지고 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주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곧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핵심을 사랑으로 삼고 계신가요? 신자 된 두드러진 표가 왜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4-8절을 통하여 사랑은 열심이나 불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간 자식 때문에 더운 여름에 에어컨 틀기를 거부하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 가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구원받아 함께 생명과 진리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아니면 무엇이 안 될 것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누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사랑이요, 모든 민족에게 잘 수 있는 **‘근거’**입니다.

혹시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즐겨 군복을 입고 살상무기를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제자 훈련, 제자도, 모든 성도의 근본 사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자된 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먼저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표를 내야합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따뜻한 사람, 그늘이 되는 사람입니다. 옆에 가면 찬바람 불고, 걱정스러운 일이나 잘못된 일을 의논하면 눈에 힘주고 짜려보는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앞에 제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근거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자들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은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내 이웃입니다. 기독교적인 이웃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그분의 은혜를 소개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로 시중 들어야 하는 대상이 전부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하는 양육강식이나 적자생존 방식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자기 것이 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수종 드는 자로 삼으셨지, 우리의 것을 뺏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것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히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히 주실 수 있기에 수종 들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위나 원리나 계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 제자도의 의미

제자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넉넉하게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신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부요함이 있습니다.

결국 제자도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아무리 나누어도 손해 보는 일이 아니며 부요한 결실을 맺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자훈련은 어떤 특수 요원이 되거나 기술을 배워 특수직을 감당하는 자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본질과 격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안에서 부요해지도록 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자도와 섬김

제자도의 핵심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편하거나 뽐낼 수 없습니다. 그건 고달픈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되, 그 사랑을 섬기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같은 옳은 말이나 명분 있는 말을 하면 대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행하지는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너무 나쁩니다. 사랑을 말할 때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지고 가야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원수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31-33절을 통하여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저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희생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기꺼이 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유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사양하는 저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로 말입니다.**

7월 28일 수요일

본문: 히브리서 11:6절

찬송:

## &lt;3장 신자란 누구인가&gt;

우리는 앞서 두 장에 걸쳐서 제자훈련에 대한 근본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8절에서 전도 일변도의 근거로 보는 것이 맞는가? 만약 전도라고 한다면 그 전도가 단순히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존재론적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두 본문 모두 이스라엘 국가주의를 타파하는 구원의 보편성,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더 큰 초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자로 삼[으라]”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은 그 내용이 선포적이기 보다는 그 결과인 존재론적 증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권면과 선포이기 보다는 새 사람 곧 증인으로서 ‘나는 누구며, 내가 전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신자가 믿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11:6절로, 믿음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기서 ‘존재를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권, 섭리권, 심판권을 포함하여 그분의 존재와 유일한 권위와 주권과 높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라고 애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으면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화목하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와 복주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는 추상적인 개념과 목표로만 있지 않고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믿음, 진리와 생명

‘신자란 누구인가?’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자인 우리에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좀 더 객관화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소원과 정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말에는 내가 진리와 생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과 정성은 내가 그 내용과 목표를 정합니다. ‘**믿음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모든 권위와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마치 내가 진리를 선택하거나 깨우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며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생명이 없기에 빚어진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해놓고도 믿음의 근거가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자기도 모르게 정성과 소원으로 기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추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훨씬 앞선 목표로 튀어 나오게 됩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가 순종의 표현이면 좋은데, 전도를 하는 사람의 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면 안 됩니다.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열심히 순종하는 열심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는 당사자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정한 목표와 내용이라면 성경과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 믿음, 삶의 원리와 자세

우리가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달라는 것’뿐입니다. 한번 보란 듯이 찰 건수를 달라는 것이죠. **그동안 제자훈련은 일종의 능력을 과시하며, 주를 향한 내 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기 부여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능력과 열심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믿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어서 인생의 목표와 삶의 원리와 자세에 영향을 줍니다. 믿음은 의욕과 능력과 열심을 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삶의 원리와 자세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신앙의 약점은 자꾸 경쟁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데 있습니다. 누구는 달란트가 열 개이고, 누구는 다섯 개이고, 누구는 한 개일 수 있습니다. 신자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달란트가 열 개를 가졌고 다섯 개를 가졌다고 계속 비교하다보면, 우리는 ‘더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욕심 낼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잡고 어떤 자세와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인 된 최고의 책임이요, 더 이상 값진 것이 없는 사명입니다.

제자훈련이 세상의 가치로 치장되는 것은 성경의 요구하는 신앙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가치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트화, 전문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큼 사십시오, 충성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책임입니다.

### 존재와 인격을 변화시키는 믿음

믿음은 인간 존재와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한 방법과 수단이 아닙니다. ‘신자란 누구인가?’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한 사는 방법과 원칙에서 존재와 인격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전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어야 할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한 믿음’, ‘성공하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키고 충성하며 인내하는 그런 안목과 본별을 만드는 것이지 무엇을 이루는 기술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의 소원과 욕심을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해 믿음을 동원할 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소원의 표시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이 소원일 이루는 방법이나 비장의 무기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내 소원을 주장하면서 ‘너는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겁니다. 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안 되면 뭐라고 그러니까? 생떼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믿음은 **“땡깡”**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이는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 믿음의 내용, 분별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죄인 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분별’입니다. 분별은 인간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6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실패는 세상의 가치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세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17-19절의 내용을 통하여 이것이 죄인 된 인간의 모습이고, 죄가 주도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를 아는 것이 믿음의 큰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선 죄인 된 인간과 세상의 첫 번째 큰 특징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올바른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가운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협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을 때만 오답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맞는 것이 있어야 틀린 것이 증명되는데 맞는 것 곧 과녁이 없으면 어디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오늘날 세상살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세상에서 가장 나은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덜 못한 방법입니다. 공산주의보다는 좀 더 낫다는 것이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에 의해 결정을 하는데, 다수가 공감하는 것은 보통 틀린게 많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없고 감각도 없어 방탕합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허송세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쏘아가고 연결해 가는 것이 없는 생활을 ‘방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더럽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조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분별하는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르고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사형통하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감기 안 걸리나요?? 믿음은 세상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시의 환경과 조건을 뒤집어 놓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세상 조건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 없이 전도를 해서 기술과 열심과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 같이 얘기 한다면, 그 전도가 전도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신자의 길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란 **‘죄를 피하고 의와 거룩을 목적하는 자’**입니다. 이런 것이 땅 끝까지 이른 증인의 모습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보여줘야 할 신자의 진면목입니다. 이는 활동적이고 사건적이기 보다는 훨씬 존재론적이고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믿음의 본질, 생각

우리는 믿음의 핵심이 진리와 생명인 것을 앞서 확인했고, 진리와 생명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물건처럼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들은 ‘시험’과 ‘순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아 나의 열심을 보상받으려 하거나, 내가 정한 내용

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얻는 것을 믿음으로 호도하려는 발상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에, 믿음은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소원에 근거하여 치성을 드리는 것과 대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치성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요구를 얻기 위하여 무작정 열심을 드려 그 결과를 이루어 줄 대상을 행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초월과 정성에 두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초월에 두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정성에 두는 것은 권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초월적 힘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로 나를 바꿔 나가는 작업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하는 그분의 뜻과 성품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합된 것을 말하지, 기술적 측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믿음의 핵심이 무슨 일을 이루는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허망함과 모든 시련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쌓아 나가는 일에 승리하도록 하는 우리의 분별과 안목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을 가르쳐야 할 교회와 그 안에서 이 믿음을 배워야 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믿음의 본질, 순종

믿음은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또 다른 본질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열심’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뜻밖에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인내에 관한 표현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등등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반복 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것이야 말로 뜻밖에 가장 중요한 전도의 목적이고, 전도의 내용이며, 또 전도의 방법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대로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의 가장 큰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7월 29일 목요일

본문: 신명기 28:15절

찬송:

## &lt;4장 성경, 기도, 경건의 시간&gt;

믿음은 신자들의 정체성을 다루는 것이므로, 이제는 몇 가지 신앙의 핵심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의 몇 가지 본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 장부터 제자훈련이 하나의 기술 훈련으로 오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믿음이나 성경이나 기도까지도 훈련 기술을 익히기 위한 방법론으로 오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이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2장과 3장이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이었다는 저자의 의도다)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 신자의 정체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무엇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되었기에 이미 받은 것은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에 ‘믿음, 성경, 기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벌써부터 임무부터 생각합니다. ‘믿음, 성경,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더 크게 하고 더 풍성한 결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동원하니까 이상한 선교회 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 제자훈련과 성경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고 결국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믿음이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근거해야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어딘가에 붙잡히면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믿음이나 기도가 언제나 방법으로 둔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다루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의 정의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합니다. 이 말씀도 **일(doing)**에 관한 것이 아니고, **존재(being)**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은 **일(doing)**로서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being)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해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서 그 ‘무엇’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중에 유포된 제자훈련은 임무입니다. 임무가 주어지면 일거리가 됩니다. 그 임무를 이루기 위해 다른 재주를 동원하는 재주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전도를 강조하면, 주를 사랑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람을 많이 끌고 왔느냐만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믿음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 열심과 전심을 가르치기 전에 두 가지 ‘무엇을, 어떻게’에 관심을 먼저

가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열심이나 진심에 관한 문제이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과 ‘어떻게’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기를 기뻐하는지를 알기 위해 성경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훈련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이 주권을 잡으려는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순종한다고 시작한 했으나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만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도매상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실행하는 제자훈련에서 가장 치열하게 시비를 걸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몇 개의 열매를 맺었느냐보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할지라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양과 소를 받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때, 여기서 ‘제사’는 우리가 신에게 바치는 맹목적인 열심과 치성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란 모름지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에 항복하여 순종과 감사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하시니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도 잃어버린 영혼을 많이 낚아오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잡아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열심히 치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이었듯이 순종이 믿음의 근본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입니다.

제자훈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하나의 임무여 사역이요 책임이라 생각해서 자꾸 일로 가다가 어떤 **운동(movement)**을 만들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국노가 되는 집단 열광주의로 가는 것은 정말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훈련은 전도다’라고 집단열광주의로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편견을 키우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성경의 주된 초점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론이거나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서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나 부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더 부요하고 깊은 책입니다. 첫 번째 초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고, 두 번째 초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거룩하심 자비로우심에 초점을 두라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나’여야 합니다. 능력적 차원이 아닙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제자를 삼았느냐는 업적의 차원도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나’.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나’.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델인 ‘나’가 초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제자훈련은 그 ‘나’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멀리’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와’ ‘더 멀리’는 나 된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자요, 섭리자요,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사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는 그분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유치한 거래를 고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높은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주요 사상이며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큰 권세로 우리를 겁주거나 놀라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시기를 기뻐합니다. 그건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늘 받아 누렸기 때문에 당연한 줄로 압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편125:1-5절을 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습니다. 태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는 영원히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점에서 두 가지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모든 존재와 역사, 온 우주에 유일하신 주재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의 차원이 아니고 존재의 차원 곧 인격과 성품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 구약을 통틀어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입니다. 다른 표현도 있지만,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적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똑하고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업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책임, 최고의 자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전도란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열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받아들인 사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 갖는 자비와 열심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과 거룩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나가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그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생각하거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는 격리되고 분리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뛰어들어야 하고 어떤 때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소리 높여 외쳐야 하고, 어떤 때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편에 선자, 거룩한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당연히 나타내야 할 반응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하고 지혜롭고 실력 있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결론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제자훈련의 핵심은 결국 신앙 인격훈련입니다. 신앙인격 훈련이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닮아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인지하고 용서하며 덕과 선한 말로 유익을 도모하는 자요 훈련**

##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끝부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와 다음 부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고서는 가서 만난 자들에게 또 가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신자다운 것, 거룩함의 더 깊은 경지로 가는 싸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존재의 깊이와 목이 넓어지는 싸움,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 제자훈련과 기도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존재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임을 확인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것은 필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자로서 우리의 삶의 필요한 모든 거룩한 것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주문과 부적)이 아닙니다. 즉 거룩과 생명에 속한 것이 세상에서 얻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도가 당연히 하게 만듭니다.

가끔 마가복음 9:29절이 필요한 것을 얻는 최후의 방법 혹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도를 오용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 잘 안 풀리던 일도 바로 결과를 얻는데, 더 빠른 결과를 원할 때는 금식까지 하면 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신문고와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금식이란 내가 신령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이 힘이 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먹어서 힘을 냅니다.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얻으려는 힘이 세상에 있지 않은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표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얻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온다.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방법적 차원에서 하는 거다. 세상은 거룩과 생명에 대해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제가 얻으려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자신이 살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구해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기도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의 확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셈입니다.** 기도를 안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누가 한 것인지 모르죠?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생각할 틈이 없이 때발총처럼 쏘면 안 되고 고함만 질러서는 안 됩니다. 막힘없이 쏟아 붓는 것을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기도는 좀 고민하면서 또박또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7-8절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지성이면감천’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말은 여러 번 할 수 있으나 간절함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며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은 자기 소원을 얻기 위한 열심만 있지, 그 내용이 무슨 당위성과 필연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를 얻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

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가장 깊은 것을 깨닫는 자리에 간 것을 봅니다. 불의 한 자들이 잠깐 누리는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보상하시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자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새로운 힘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딜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요청하는 것, 기도 속에 들어 있는 간구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우리의 기도는 삭제되고 맙니다. 따라서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별한 초청입니다.



7월 30일 금요일

본문: 마태복음 5:13-16

찬송:

## &lt;5장 증인으로서의 삶&gt;

우리는 그동안 4장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곧 제자로서의 책임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증인하고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할 내용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자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며,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하는 모든 원칙은 무엇인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더불어 신앙의 핵심원리인 믿음과 그 믿음의 근거인 성경도 기도 그리고 경건의 시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 다만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라는 차원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른 사명이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 존재로서의 증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는가보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이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에 더욱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서는 나누어 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먼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친다' '전수한다'에 초점을 두는 것은 순서가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말고 권유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변한 우리 자신이 일차 증인이라는 의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자이기 전에, 이를 가르치려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일이 증인의 첫 번째 몫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것을 가르치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깐 우리 자신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을 나열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제자훈련이 전도 훈련으로 오해되는 것에 시비를 걸었듯이 제자 훈련이 기술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론과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전제의 문제가 강조되어야 제자훈련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전도”는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적 사명을 크게 강조해왔고, 또 증인이 되는 일이 신자의 책임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인됨이라는 것이 가서 전하는 행위 곧 전도라는 일로만 강조되어 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변했으며, 무엇으로 변했는지'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도는 기술적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의 변화를 증언되어야 하는 책임이고, 그 후에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새 영을 입은 자들입니다.

## 증인 된 조건, '진리'

요한복음 8:31-32절을 통해 제자 된, 증인된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의 첫 번째 핵심 원리는 '진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말씀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거짓을 고발하며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답이 있고, 그들에게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다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을 틀렸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없으면 무엇이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알아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진리가 진리 된 표로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배타성이 아니라 정답을 알기에 나오는 부수적인 부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이루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로 살 때에 '무엇을'과 '어떻게'를 바꾸어야 하는데, '무엇을'은 그냥 있고 '어떻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이라는 목표는 내가 갖고, '어떻게'는 내 힘으로는 안되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에베소서 4:17-18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과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데나 대고 활이나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목표도 없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올바른 길을 갔는지 아닌지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이들은 무지합니다. 미련하기보다 오히려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 비신자들의 삶의 큰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20-21절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압니다. 믿지 않는 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내버려둔 인생입니다. 그들 같지 않다는 것은 방탕하거나 더러움에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압니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의 감각이 있는 겁니다.

진리 없이 똑바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미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더 후한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진리가 있고 없고'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감각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힘을 주셔서 거룩한 곳으로 나를 떠밀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실천해야 합니다. 물결에 휩쓸려 가던 자에서 생명을 가진 물고기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유혹을 까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길을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서신서에 나타난 성화에 대한 요구들을 보면 거룩함을 향할 기계와 회로를 넣어 주지 않습니다. 밤낮 '이래야 한다. 이러면 안된다'만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으로'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할 힘을 달라고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란 생래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습관 제2의 천성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상화나 거룩한 것들을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연

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본질적으로 절제와 경건을 익히게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자기가 할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표정과 감정과 행동까지 모든 것을 바꿔 가는 싸움이 결국 제자훈련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복 받은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살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지도력을 가진 특수 계층의 책임이 아니고 일반 신자에게 요구되는 본질적 책임이고 모습입니다. 제자훈련은 지도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진리'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13-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놓고 계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것이 예수의 증언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삶의 목적을 묻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압니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 증인된 조건, '생명'

증인의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19-21절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와 비교하여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결실이 아니라, 쓸데없는 애쓰임입니다. 헛된 노력입니다. 여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기에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칙을 보십시오, 생명과 사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세상은 사망이 이깁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우리에게서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단시간을 놓고 볼 때,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썩어 사라집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썩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비가 오면 비 때문에 크고,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크고, 해가 비치면 햇빛 때문에 큼니다. 신자들이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 때문에 크고,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일로 큼니다.

생명은 당연히 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생명은 겨자씨로 시작할지라도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로 남아 있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까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변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크질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명확하지 않고, 믿음을 생명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감동할 때마다 벽돌을 한 장씩 굽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보면 벽돌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 믿음에 대해 권면하거나 도전하면 자극을 받아 벽돌을 쌓습니다. 누구 벽돌이 더 높은지 말이죠. 그래서 벽돌이 쓰러질까봐 밤낮 앞에 붙잡고 있습니다. 좀 넉넉하면 납작하게 쌓아놓고 그러지 못하면 새로로 쌓기도 합니다. 방에 벽돌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그것들로는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냥 벽돌 더미입니다. 벽돌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어 내 믿음을 키운 것이 아니라 감격의 사건과 기억들만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벽돌을 잡고 '내가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울었는지, 진심으로 가득했는지'를 계속

회상하고 그리로 도망을 갈 뿐입니다. 감격과 자랑거리만 가지고 있지, 실제 우리를 키우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신자된 큰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믿음이 감격적인 사건으로 들어와 있지, 생명을 키우는 영양분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감격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존재이지, 그 감격이 '나'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먹고 크는 생명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안의 생명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훈련이 제자훈련입니다. 마태복음 7:15-20절을 통해 무엇을 기준 삼습니까?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둔 새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 새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자하고 자비하며 오래 참고 유익한 말을 나누고 빌에 거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열매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자인 우리에게 마땅히 맺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잡아왔느냐가 열매라는 식으로 강요받았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얼마나 많이 잡아오느냐가 우리의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가진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로 나타납니다. 엄밀히 말해,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나를 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부탁의 말씀을 사명으로 갖는 이 일에 있어서 더욱 성도다워야 합니다. 의와 진리로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생명이 허락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과 정당한 가치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이고, 목적지를 위해 필요한 원리이며,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부수적 결과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넌 뭐하다 왔냐?'라고 물으실 때 '햄버거 만들다 왔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전도하다 왔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햄버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말이죠, "손님이 순 악질이었지만 맛있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너 잘했다'라고 하실 겁니다. 햄버거를 만들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닙니다.

전도가 형태화되고 명분화 되었습니다. 원리적 차원에서 보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는 착한 나무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착한 나무가 되어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 훈련의 장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기술의 문제나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나타난 당연한 결과로서 있어야 할 증언이라면 전도가 기술적으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25-32절의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무슨 실험이나 훈련장 같은 곳에 모여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로 만들어진 훈련장은 우리의 본질을 점검하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운전하면 입이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 자신에게 확인시키고 훈련시키려면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시험이란 아는 것을 내지 않는 법입니다. 시험 문제를 “자기 이름을 한글과 한문과 영어로 써라”고 내지 않습니다. **시험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며,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부르셔서 이를 채우고 완성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훈련을 위한 조건과 환경으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별 볼일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기도하면 남편이 승진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는 조금 만 어려워지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건달만하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고 제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은 착한 존재에게 당연한 열매이므로, 일에 대한 생각을 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착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완성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로 가기보다 우리의 완성을 위한 환경을 먼저 제공받는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 일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건 여러분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차 목표이지 여러분을 써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1-3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기에 아브라함에게 믿보이면 하나님께 믿보이고,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신학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생애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숙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인생과 그에게 허락된 땅,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대를 이을 아이 낳기를 고대하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 혼나고 백 살에 이삭을 낳고 죽었습니다. 특별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룯과 헤어지고 또 룯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보듯이 그가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적 책임이 먼저가 아니라 전재적 책임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과 기술보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선교사로 땅 끝까지 가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일차 임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증인 된 삶의 첫 형태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축복할 것인지, 저주할 것인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정한 후에 능력과 조건을 구하는 것은 잘못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31일 토요일

본문: 로마서 12:20-21절

찬송:

## &lt;6장 성도의 삶과 훈련&gt;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서 ‘가르친다’는 말 때문에 제자 훈련을 무슨 특수 분야 교육을 받는다거나 지식을 전수하는 기술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은 전인격적인 존재와 삶으로 증거하는 신자의 책임이 나타나는 제자도요, 이 책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 신앙의 오해들

제자훈련은 특별한 기능을 극대화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인격과 영혼의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당연히 그 변화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가 중요합니다. ‘당연하다’는 의미는 보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자 된 자에게 제자로서 증언이나 역할이 특수 계층에만 있는 희소한 것이 아니라 모도에게 있는 당연한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이런 특수 기능을 훈련하는 것으로 제자훈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자훈련의 한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자훈련이 한두 가지 특수한 기능만이 아닌 전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사역이나 사업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신자 된 존재 자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와 복종이라는 말 속에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도는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내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나면 흘러내리는 물을 막으려고 큰 돌을 하나 갖다놓는 것 같습니다. 큰 돌이 있어야 그 사이에 작은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돌은 큰 돌에 의지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줄기를 믿음으로 삼아 하늘로 올라가는 로켓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분명하고 충만하면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모시고 우리 안에서 주의 힘을 발하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란 용서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실패와 실수가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기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완전주의적 이상주의 때문에 신앙의 핵심을 계속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웅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전투를 하며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듣는 입장에서 소극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57-58절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죽는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주 잘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도 하나님께 갈 때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갑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면, 죽을 때라도 천군 천사를 대동한 불 병거는 아니더라도 중형 세단 자동차라도 보내주실 수 있지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이 세상을 떠납니다. 믿음의 거장들도 악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덩이나 독특한 특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영웅적이거나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헌신과 희생을 했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부각되거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곡식을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썩어든 보리든 지금 심어봐야 당장은 먹을 수 없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심습니다. 그러다 농부가 곡식을 심고 죽으면 있던 것을 버리고 죽은 건가요? 싹이 나는 거라도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추수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생활은 씨를 뿌리는 것 같고 김을 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6-9절을 통해 이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부 잘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 잘하게 하려면 혼을 내서라도 매일 붙잡아 앉혀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보너스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자신이 잘했을 때 물리적인 보상이 없는 것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또는 예수의 증인과 자제로서 사는 것은 정말 굉장히 고단하기 때문에 잘한다 말할 줄 알아야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깔보이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제자가 스승만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이 스승인 주님도 미워했는데, 우리라고 관찮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욕과 오해를 안 받고 실패 없이 지내려고 합니까? 도대체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을 닦아서 실패와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지 않겠다는 건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싸움에서 질 것과 고난을 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부득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전할 때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혹은 “이기는 자에게는”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 이기기가 힘든 싸움을 맡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서 보상이 있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기다’는 의미는 무슨 월드컵에서 승리하거나 전쟁에서 이기듯이 보상과 영광이 쏟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놓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굴하지 않으며, 오해를 감수하고 버티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은 동료 신자들에게마저도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대접을 못 받습니다.

결국 제자훈련이란 우리의 믿는 바와 믿음의 내용인 생명과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한 개인으로 볼 때 믿는 자 된 것과 신앙인 됨의 싸움이요, 그 신앙의 내용인 생명과 거룩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훈련을 기술적 방법으로 썼다고 해서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자훈련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이 도구를 쓰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위하여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자훈련을 기쁘게 쓰십니다.

### 신자 삶의 3대 원리

성경은 신자 삶의 3대원리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

**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동시에 **소망은 이 세상에서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아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내가 가진 믿음과 목적지를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자는 전도라는 하나의 형태적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단어이며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이 왜 필요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내용에 들어 있고, 이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 훈련의 필요성과 그 내용

제자훈련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불의의 무기인 나를 뽑아내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의의 무기로 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특수한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영광을 돌려 신자 된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몸뚱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정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긴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흔적과 인품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전부 표정이 나뻑니다. 표정은 많은 말을 합니다. 서로 따듯하게 쳐다보고 기다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능인을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만들었는데는 몰라도 따듯한 사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훈련은 특별한 임무나 두드러지는 능력 같은 것인데 비해 성경이 요구하는 제자훈련은 정말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런 작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 노릇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생각과 말’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부 ‘생각과 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이 말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왜 등장할까요? ‘말’은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표입니다.

로마서 12:3절을 통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할 때 **“마땅[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 이외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는 마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생각입니다.

로마서 12:7절을 통해 **“혹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는 말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는 일로 자랑하는 실수는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유세할 때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사람이고, 어떤 애국심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는 자신의 희생정신과 고귀한 인격으로 보상 받고 싶어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내가 가르친 열매로 보



상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효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효도하는 자의 상은 효심을 가진 것이 상입니다. 부모에 대해 불편한 마음과 불만족을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벌입니다. 효도하는 자는 효심을 가진 것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 된 교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르칠 기회가 생겼다면, 내가 쓸모 있다는 것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자체가 보상입니다. 남 앞에 서는 직분보다 섬기는 직분이 가장 큰 봉사직입니다.

우리는 선두에 선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절대 감수하지 않으려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방긋방긋 웃고 있다가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공물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다 받는다’이겁니다.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이로써 나에게 공물을 입은 사람이 내가 가는 길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이고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명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이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훈련입니다. 이외에 신자가 신자 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주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특징을 알고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연습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 받는가?, 안 받는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시험해보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으로도 얻지 못했던 행복과 보람을 누리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권리와 세상의 질서까지 무너뜨리거나 세상에 무조건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나 개인의 욕심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워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능한 화평하고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네가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쏫불이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나의 전 존재가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일을 위하거나 특별한 일을 위하거나 특수한 기능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졌으나 그 믿음이 아직 힘을 발휘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할 지혜가 없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것도 아셔야 합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칫 기고만장한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남보다 더 높고 큰 소원과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주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어 여태껏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해내는 특별훈련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나의 업적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습관의 본질이 달라질 때까지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8월 1일 주일

본문: 에베소서 4:25-32절

찬송:

## &lt;7장 제자훈련이란 무엇인가&gt;

앞장에서 제자훈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근거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누구인가?’하는 것이고, 소망이란 ‘**무엇을 목표와 가치로 두는가?**’하는 것이며 사랑이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려면, 먼저 ‘제사장이 무엇이며, 제자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제자도의 초점이 우리가 믿고 목적하는 것을 지키되 함께 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원리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일(doing)이 우선이 아니고 존재(being)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being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being이어야 합니다. 빌립소서 1:8-11절을 통해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요구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요구입니다. 상대방이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하기를 바라는 요구입니다.

## 제자훈련의 원리

우리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종교적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조금 극단적으로 흘러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 그 존재가 넓고 깊고 높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 원리로서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가야합니다. **종교적 일을 함으로써 제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한 증인으로 서 제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존재 자체가 변한 것으로 말입니다. 풍성한 인격과 성품이 있어야 제자이고,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쓰이는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가기 위한 것으로 쓰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21-24절을 통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인지 25-3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씀은 하나 됨을 해치는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도덕적 차원에서의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야 말로 하나 된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 됨을 해치는 행위는 함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재미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뭘까요? 화가 나면 끝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에서 로마서 12: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정말 의미심장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면 터무니없는 일이나 못된 것으로 뒤집어씌우려 하지 않나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악당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내가 악당이 되어도 좋고,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를 보면 그 악한 자를 꺾기 위해 나도 모르게 더 악한 자가 됩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군가를 매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내가 달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남의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며, 남의 마실 물에 침을 뱉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더러운 말’입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전도적 사명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첫 번째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동과 형태로 직선적으로 나타나 기보다는 생활과 자세와 성품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15-21절을 통하여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제자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복받치는 감사, 환희, 희열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복종’이라는 원리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복종’이 왜 등장할까요? 빌립보서 2:3절을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함께 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과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 행동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대접해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감수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훈련의 원칙입니다.

## 순종

어쩌면 에베소서 5:22-6:9절에서 신앙의 최고 원리를 소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모습은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5:18-21절을 통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복종을 제시합니다.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종들아..... 순종하[라]”**가 먼저 나오는 것은 이들이 순종을 요구 받는 배역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원리가 제자도에서 훨씬 강조되어야 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함께 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수를 믿는 것과 주의 사랑이라는 대원칙에서만 따지고, 이에 충돌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순종의 원리가 제자도에서 훨씬 강조되어야 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함께 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수를 믿는 것과 주의 사랑이라는 대원칙에서만 따지고, 이에 충돌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가치를 세상적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아무도 그가 대사도 바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줄 몰랐고, 모세가 위대한 구국의 영웅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면 언제든지 변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서신서에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골로새서 3: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와 같은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 주는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제자는 이를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중인으로 삼으시려고 전도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적 사명은 전도라는 행위적 사건보다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고 찾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성품과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모습을 통해 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적 사명은 현실에서 우리와 부딪치는 모든 문제 곧 존재 자체, 성품, 삶의 자세, 원리, 방법, 가치관 등에 대한 반응을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내

성도가 가진 중요한 신앙의 원리중 하나가 ‘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진

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고 정합니다. 그러고는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 보고 만들어 내라고 합니다. 이런 막무가내 신앙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15을 보시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는 짐을 부담으로, 억울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 때문에 부름 받았고, 그 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드디어 보람과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매일 져야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고민 없이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떤 걸 해보아도 우리가 질 짐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감사로 갑니다. 감사로 결론이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는 짐의 영광과 가치를 아는지 묻는 셈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 사는 인생살이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는 어떤 일인지 아느냐고 묻는 셈입니다.

내가 나를 쳐 복종시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을 잇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훈련은 갈라디아서 5:16절과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성경을 좇는 생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에베소서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품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그 성품은 전부 상대방 곧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요, 함께 가는 싸움을 위한 기다림이고 겸손이며 온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지혜, 분별과 안목

제자훈련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근본 원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을 함께 가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근본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해와 원칙은 분별과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혜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믿음은 모든 성도의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완성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믿음과 사랑 사이에 뭔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다 되는 것 같고, 사랑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다 아닙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다 되는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그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훈련을 해야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선명함과 단호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풍성함에 대한 문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풍성함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으로 부요해진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싸움이 힘든 이유는 단호하고 배타적일 정도로 유일함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길만 달리는 것, 단호하고 선명한 것은 하나의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에는 유리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의 내용은 하나의 형태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목표와 방향에 직선을 그려 실제로 사람이 가야

하는 길과 방법을 정죄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애를 살리는 싸움이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며, 많은 열매를 위해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나도 함께 빼 주십시오,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훌륭하거나 성공한 것을 모범이나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범은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못났거나 타협을 하거나 게으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즐기는 게 아니고 책임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 책 초반부에서 여행 가는 것은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은 잠시 본연의 임무를 떠나는 탈영과 같습니다. 한번 다녀온 여행으로 현실 책임을 도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여행을 가는 간격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자주 나가고, 가서 오래 있고, 돌아오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형상은 정상적 생활의 책임들을 방해하고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진 짐을 벗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제자훈련의 목록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짐을 지는 것이 답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1:28-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짐 곧 십자가를 보고 마음에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쉽다고 하신 걸까요? 마음이 억울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쉽습니다.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책임입니다. 그 짐은 열매를 얻는 구원 사역의 짐입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지신 짐입니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지는 짐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져야 하는지 나를 보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헛된 세상에서의 보상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엘리트가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트나 리더가 영웅이라고 한 적이 없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은 전도 훈련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이 기술훈련이기 보다 인격 훈련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자훈련을 하거나 시키는 사람들이 100%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훈련의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존재론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왜 이렇게 전도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지혜 곧 분별과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끈질겨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함께 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과 안목을 통해 자신을 얼마나 절제해야 하며, 권리나 기쁨을 상대방을 위해 얼마나 양보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제로 신앙의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에게 허락한 제자도요,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